

■ (언론 동향) 2021.9.7. “이투데이” 보도

○ 중국 식량안보, 글로벌 시장 뒤흔든다

- 중국,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 전년 대비 3.4배 확대
- 남미 수입도 늘려 해상 운임 상승 유발
- 비료 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서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 글로벌 곡물·해운·비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식량안보를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급격히 늘리면서 올해 국제 상품시장에서 곡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 강화는 농산물의 안정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의 원료나 해상 수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10년 전 미국산 옥수수 매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미 옥수수 수입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인 20·21양곡연도에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2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배나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최대 미국산 옥수수 수입국이 됐다.

스미토 글로벌리서치의 혼마 다카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매입이 급증한 요인 중 하나로 장강 유역의 심각한 홍수 피해를 꼽았다. 그는 “중국이 시장 침체에 쌓아뒀던 재고의 상당 부분을 못 쓰게 됐으며, 이상 기후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생산국도 생겨났다”며 “이에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곡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 증가는 국제 시세를 끌어올려 각국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은 미·중 마찰 속에서 거리가 먼 남미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려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벌크선 시황을 나타내는 발틱해운지수가 지난달 급등한 것은 중국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입항 규칙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농지나 식품·유통 기업 인수에 나서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는 화학비료 원료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 농가로 이어졌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5월 말 “6~10월 비료 가격을 지난해 11월~올해 5월 대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주요 산지의 수요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에 염화칼륨 국제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변효선 기자>